“소재 신선” vs “친숙해 보일까 우려”

교도소에 빠진 TV … 시청자 갑론을박

‘전설의 마녀’ ‘착하게 살자’ 등 드라마에서 예능으로까지 확대 논란속에도 꾸준히 시청률 상승

TV가 교도소에 빠졌다.

드라마에 이어 예능까지 교도소를 무대로 카메라가 돌아간다. 영화적인 소재라고 생각했던 교도소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새로운 소재를 찾는 과정에서 ‘필연’적인 귀결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다양성을 추구하는 움직임 속에서 자연스럽게 다다른 장소라는 것이다. 빈번한 조명 속 교도소에 대한 시청자의 감정적 진입장벽이 낮아진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비례한다.

TV, 왜 교도소인가.

◇ ‘전설의 마녀’부터 ‘크로스’까지…“멜로 탈피 움직임의 결과”

한정환 SBS 드라마 1EP는 4일 “예전에는 교도소를 무대로 하면 공간이 한정되고 이야기가 단조로워 안 다뤘지만, 요즘에는 드라마들이 소재를 확장하면서 그간 안 다뤘던 영역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과거에는 한국 드라마가 남녀의 멜로를 중시했지만 요즘에는 브로맨스 등 멜로가 아닌 이야기도 많아지면서 교도소도 드라마의 좋은 소재가 되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JTBC ‘착하게 살자’

TV드라마에서 교도소를 본격적으로 조명한 것은 2014년 MBC TV 주말극 ‘전설의 마녀’다. 심지어 여자 교도소였다. 주말극에서 저마다의 억울한 사연으로 교도소 동기가 된 여성 4인방(한지혜, 김수미, 오현경, 하연수 분)이 출소 후에도 자매처럼 끈끈한 인연을 이어가며 공통의 원수를 향해 복수하고 역전의 용사가 되는 이야기다.

그러다 지난해 1~3월 SBS TV ‘피고인’이 본격적으로 교도소 내에서 이야기를 전개해나가면서 ‘교도소 바람’에 불씨를 당겼다. 지성에게 ‘2017 SBS 연기대상’을 안긴 ‘피고인’은 누명을 쓰고 사형선고를 받은 전직 검사가 무죄를 밝히기 위해 탈옥을 감행하는 액션 스릴러였다. 현실성이 제로에 가까운 황당한 이야기였지만, 지성의 명연기와 교도소라는 공간을 한껏 활용한 스릴러가 조화를 이루면서 자체 최고 시청률 28.3%를 기록했다.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

지난달 18일 끝난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은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았다. 제목에서부터 확실하게 정체성을 드러낸 이 드라마는 갖가지 사연을 가지고 교도소에 모인 인간군상의 이야기를 풀어내며 인기를 끌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공이 1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블랙코미디로 조명했다.

지난달 29일 시작한 tvN ‘크로스’는 교도소와 병원을 오가는 메디컬 드라마다. 전도유명한 외과 레지던트가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교도소 의무사무관이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크로스’의 김진이 스튜디오드래곤 CP는 “특별히 기획의 출발이 교도소가 배경인 드라마는 아니었다”면서도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가 의학적 지식으로 환자(복수의 대상)를 육체적 고통 속에 감금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잘 보여주기 위해 작가가 교도소라는 배경을 선택했다”고 소개했다.

◇ 예능까지 등장…“교도소가 친숙하게 보일까 우려”

리얼리티 예능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19일 시작한 JTBC ‘착하게 살자’는 욕먹을 각오를 하고 출발했지만, 시청률 2~3%대로 성적이 나쁘지 않다.

연예인들이 가상의 범죄혐의를 안고 구치소에 수감된 후 일주일간 옥살이를 실제로 경험하는 과정을 관찰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상 설정에서 출발하지만 실제의 교도소에서, 실제 절차대로 촬영이 이뤄졌다.

MBC ‘전설의 마녀’

시청률 2~3%의 반대편에는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교도소 내부를 봐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실제로 구치소에 수감된다면 절대 웃을 수 없을텐데, 출연자들이 틈만 나면 낄낄 웃음을 터뜨리는 모습도 논란이다.

한 홍보사 관계자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교도소가 낯설지 않다는 말이 나온다는 얘기가 돌아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며 “살면서 절대 가서는 안되는 곳인데 드라마에 이어 예능에서까지 다루다 보니 교도소를 겁내지 않는 아이들이 나온다더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제작진이 아무리 ‘미화’가 아니라고 주장해도, 남녀노소가 보는 TV에 노출이 잦으면 은연 중 교도소가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 드라마 ‘슬기로운 감빵생활’의 경우도 미화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결국은 죄수들 저마다의 인간적인 면모를 부각하면서 시청자가 죄수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만들었다.

한 방송 관계자는 “누군가는 감옥 생활이 그리 나쁘지 않다고 느낄까 봐 걱정”이라며 “실제로 감옥에 간다는 것은 드라마도, 예능도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과거를 묻지 마세요’ 나애심을 기억하며

오늘 ‘가요무대’ 추억의 무대 장사익·최백호 등 한자리에

KBS 1TV ‘가요무대’가 작년 12월 87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난 가수 겸 배우 나애심을 추억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가요무대’는 5일 오후 9시 40분 방송에서 ‘가요계의 영원한 별, 나애심을 기억하며…’란 테마로 후배 가수들이 고인의 대표곡을 노래하는 무대를 선보인다.

이날 방송에는 평소 ‘가요무대’에서 만나기 어려운 소리꾼 장사익과 가수 최백호·정미조를 비롯해 주현미·장은숙, 테너 진성원 등 여섯 가수가 출연한다.

장사익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와 ‘미사의 종’, 최백호는 ‘세월이 가면’과 ‘백치 아다다’, 정미조는 ‘물새 우는 강언덕’과 ‘백치 아다다’, 장은숙은 ‘언제까지나’, 주현미는 ‘물새 우는 강언덕’과 ‘영원한 사랑’, 진성원은 ‘사랑의 송가’를 들려준다.

제작진은 “나애심 선생 생전 인연이나 추억이 있는 후배들이 출연해 음악으로 고인을 기억하는 자리를 꾸민다”며 “출연 가수들이 부르고 싶은 노래를 선곡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중복된 곡도 있지만, 가수마다 음색과 창법, 편곡 스타일이 달라 같은 곡이지만 다른 느낌으로 감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1950~60년대 가요계와 영화계를 누비며 ‘노래하는 은막 스타’로 활약한 나애심의 생전 작품과 인터뷰가 영상으로 등장한다. 또 1989년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나애심의 딸인 가수 김혜림이 ‘DDD’로 수상할 당시, 나애심이 함께 하며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부르는 모습도 만날 수 있다. 최근 녹화에는 김혜림이 현장을 찾아 출연 가수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애심은 1953년 친오빠 전오승(본명 전봉수, 2016년 별세)이 작곡한 ‘밤의 탱고’를 발표하면서 가수로 정식 데뷔했다. 이후 ‘정든 님’, ‘언제까지나’, ‘세월이 가면’, ‘미사의 종’, ‘황혼은 슬퍼’, ‘과거를 묻지마세요’, ‘맘보는 난 싫어’ 등 300여 곡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무한도전’ 시즌제 도입 등 새로운 준비

MBC TV 간판 예능 ‘무한도전’ 측이 시즌제 도입 또는 제작진 교체 등 새롭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한도전’ 관계자는 4일 “현재 MBC의 3월 말 봄 개편을 앞두고 ‘무한도전’이 일정 기간 휴식을 하고 시즌제로 가느냐, 아니면 기존 제작진에 휴식을 주고 새 제작진이 프로그램을 이어가느냐 등 여러 방법을 놓고 ‘무한도전’ 멤버들과 회사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승호 MBC 사장은 지난달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능에 시즌제를 도입하겠다”며 “‘무한도전’ 등 기존 프로그램도 검토 대상이다. 김태호 PD도 ’무한도전‘ 내에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예고한 바 있다.

‘무모한 도전‘, ’무리한 도전‘ 등 파일럿 프로그램에 가까운 시절을 거쳐 2006년 정식으로 돛을 올린 ’무한도전‘은 그동안 방송국 파업이나 지난해 초 처음으로 이뤄진 7주간의 자발적인 휴식 외에는 쉼 없이 달려왔다.

이에 프로그램 측에서는 직·간접적으로 피로 누적을 호소해왔으며, 시즌제 도입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 바 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40 UHD 한식의 마음 50 인간극장	00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역류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트레킹노트 세상을 걷다 스페셜	30 살맛나는 세상	25 닥터 365 30 해피 시스터즈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5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재)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재) 50 UHD 한식의 마음	00 라디오 로맨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40 UHD 특집 화산섬 오름꽃		00 12 MBC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열린공간 톡 Talk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감성애니 하루 2 스페셜	00 VJ 특공대	10 헬로키즈 동물교실	
2	00 중계방송 국회 대정부 질문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	05 드림 주니어 스페셜 35 샤이닝스타	00 뉴스브리핑
3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5 꾸러기 식사교실 35 출발! 비디오 여행 다이제스트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0 앙코르 MBC 다큐프라임	00 토크콘서트 화통
5	00 KBS 뉴스 5 10 남도 지오그래피 30 2018 평창동계올림픽 특집 생방송 평창	00 영상앨범 산(재) 30 살림하는 남자들	00 5 MBC 뉴스 15 김경식의 영화 대 영화 30 전생에 웬수들 (재)	00 SBS 오 뉴스 4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재)
7	00 KBS 뉴스7 30 제132회 IOC총회 개회식	50 내 남자의 비밀	15 전생에 웬수들 55 MBC 뉴스	00 날씨와 생활 05 생방송 TV블로그 꼼지락
8	10 와일드 코리아 플러스 25 미워도 사랑해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섹션 TV 연예통신 스페셜 (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40 가요무대			
10	40 KBS 뉴스라인	00 라디오 로맨스	00 다시 만나는 하얀거탑 UHD	00 리턴 몰아보기 1~2부
11	10 월요기획	10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행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00 이웃집 찰스 (재) 50 생활의 발견	35 사랑의 가족 (재)	10 도올스톱 30 세상기록 48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레일 캐니언랜즈, 아치스,세도나〉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07:00 허풍선이 과학쇼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윙스
08:00 딩동댕 유치원 1~2
08:30 플라워링 하트
08:45 방귀대장 뿡뿡이
09:00 몬카트
09:15 소피 루비
09: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광어 미역국, 닭고기 두부조림〉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욘드(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14:30 뚝딱맨
15:00 우주탐험가 젯
15:15 꼬마기사 마이크
15:30 오드봇, 이상한 아이들
15:45 부릉!부릉! 브루미즈
16:00 엄마 까투리
16:15 두다다쿵
16:30 방귀대장 뿡뿡이(재)
16:45 딩동댕 유치원 1~2(재)
17:15 로보카 폴리
17:30 강철소방대 파이어로보
17:45 호기심 소녀 도트
18:00 생방송 톡!톡! 보니하니1~4
19:00 로봇 발명왕 러스티
19:30 EBS 뉴스
19:50 다문화 고부 열전
20:40 아이 오프너(Eye-opener) 〈달걀〉
20:50 세계테마기행 〈알프스에 살다 오스트리아 1부 고산의 설국 호에타우에른〉
21:30 한국기행 〈겨울이면 고립무원 1부 세 잎 클로버, 찾으실래요?〉
21:50 EBS 다큐프라임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남녀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24:30 세계의 드라마 〈차일드후즈 엔드 1부 지배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2월 5일(음 12월 20일 戊辰)

子 48년생 아무리 꾀어내어도 유혹에 넘어가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 60년생 용호상박의 치열한 경쟁이 보인다. 72년생 내심 부담스럽더라도 용기를 내어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다. 84년생 꽃방석에 앉아서 호강하겠다. 행운의 숫자 : 71, 94

丑 49년생 뜻을 굽히지 말고 분명한 입장을 견지해야 할 때다. 61년생 여태까지 전혀 경험해 보지 못 했던 경이로움이 있도다. 73년생 주체에 따라서 천양지차가 될 수도 있느니라. 85년생 약간만 더 주력한다면 결실을 거둘 수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52, 84

寅 50년생 지대한 호평을 받을 일이 생길 것이다. 62년생 드디어 희망적인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니라. 74년생 쉽게 보고 덤벼든다면 큰일 나게 되어 있다. 86년생 모든 이가 우러러 선망하는 영광을 안게 될 가능성이 높다. 행운의 숫자 : 02, 44

卯 51년생 모순이 보인다면 필히 조처해야 마땅하도다. 63년생 평상시의 기량을 발휘한다면 능히 해낼 것이다. 75년생 불안 요소가 계속 되면서 회의를 느끼게 된다. 87년생 계획했던 일이 드디어 진행될 것이니라. 행운의 숫자 : 88, 49

辰 52년생 바라던 일이 이루어져서 몹시 기뻐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의지를 바탕으로 한 노력이 수반된다면 길은 분명히 열리는 법이다. 76년생 일거양득의 효과가 크겠다. 88년생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행운이 따른다. 행운의 숫자 : 38, 05

巳 53년생 적기에 실행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느니라. 65년생 일사천리로 펼쳐질 것이니 망설이지 말고 계속 하자. 77년생 힘들면 쉬었다 하되 절대로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 89년생 중차대한 판국의 마당이니 빈틈이 없어야겠다. 행운의 숫자 : 33, 81

午 42년생 흥왕의 기운을 함께 나눌 것이다. 54년생 말을 듣고 나면 상당한 충격에 빠질 수 있다. 66년생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해 둬야 후사를 도모할 수 있다. 78년생 확실한 소신으로 임해야 한다. 90년생 잘 풀려 나가는 양상이니라. 행운의 숫자 : 96, 54

未 43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현명하다. 55년생 방치한다면 패착의 길로 접어들게 될 것이다. 67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있느니라. 79년생 지나치기 쉬운 진귀함이 보인다. 91년생 핵심을 짚어야만 효과가 커진다. 행운의 숫자 : 43, 19

申 44년생 재미를 추구하려 하지 말고 참된 의미와 가치를 찾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56년생 발언하기보다는 낮은 자세로 경청하자. 68년생 번복되어질 수도 있는 토대이다. 80년생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할 수다. 행운의 숫자 : 11, 76

酉 45년생 고정 관념을 버린다면 새로운 면모를 읽을 수 있다. 57년생 새옹지마의 국면이라 할 수 있으니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 69년생 매우 희망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리라. 81년생 안배와 활용을 잘 해야 하겠다. 행운의 숫자 : 12, 32

戌 46년생 온전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것이 이익이다. 58년생 차질이 없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70년생 구태를 과감하게 벗어던져야 참신함을 추구할 수 있다. 82년생 기탄없이 처리하고 볼일이다. 행운의 숫자 : 51, 15

亥 47년생 겸손하다면 그 빛이 더 발하여 참으로 존귀한 위상에 놓인다. 59년생 흐트러진다면 회의가 클 수밖에 없다. 71년생 마음을 터놓고 임하여 상호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만 한다. 83년생 조심하지 않으면 낭패를 본다. 행운의 숫자 : 34, 22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